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 <https://stfrancisnyc.org/>

Email: stfranciscokc.org@gmail.com

주임신부 : Brian Jordan, OFM

지도신부 : 김진열 가롤로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carolokimofm@gmail.com

지도수녀 : 김효주 (롯데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sb@gmail.com

사목회장 : 백이백 아오스딩 646. 599. 5795

제1독서 | 창세기 2,18-24

화답송



(후렴) 주님의 규 - 정 을 바 르 니 마음 을 기쁘 게 하 네.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네 손으로 벌여 네가 먹으리니, 너는 행복하여라, 너는 복을 받으리라. ◎ ○ 너의 집 인방에 있는 아내 는 풍성한 포도나무 같고, 너의 밥상에 둘러앉은 아들 들은 올리브 나무 햇순 같구나. ◎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밀줄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숙임>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제2독서 | 히브리 2,9-11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느님이 우리 안에 머무르시고 그분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리라. ◎ 알렐루야.

복음 | 마르코 10,2-16

성가 | 입당성가 [12] 예물준비 [514]

영성체 [178] 파견 [271]

미사 봉헌

연미사

이신균 요한

이신균 요한

양필순 아네스

박철규 시몬

봉헌

익명

익명

유승진 프란치스코

박성현사라 박줄리아베아트리체

생미사

이서원 마리로사 영육건강

이서원 마리로사

이서원 마리로사

윤동진 프란치스코 영명축일

윤동진 프란치스코 영육건강

오복순 건강회복

강명옥

조귀숙

유정옥

봉헌

김승애 클라라

강혜숙 바울라

익명

강호영 대건안드레아

익명

고은경 모니카

익명

익명

익명

날짜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	성찬봉사	복사
10월 6일	조소연	송명근	김승연	김승연	김종선	김실비아 조바실리오
10월 13일	장혜윤	김규현	고은경	고은경	민덕미	최사도요한 한테레사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 미사	매월 2번째 토 18:00 아래 성당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신부님께 직접 문의
유아 세례	매월 2번째 주일 미사중 *신청:사무실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사무실
예비신자 교리 견진 교리	일반인을 위한 교리 *신청:사무실
	환자, 어르신을 위한 방문교리 *신청:사무실

▶영명일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기도해요~

10.1 소화테레사 10.2 수호천사 10.4 프란치스코 10.5 파우스티나
10.6 브루노 10.7 묵주기도의 성모 10.9 디오니시오 10.11 요한
23세 10.14 갈리스토 10.15 대데레사 10.16 마르가리타 마리아
알라코크 10.17 안티오키아의 이나시오 10.18 루카 10.20 십자가의 성
바오로 10.24 안토니오 마리아클라렛 10.28 시몬, 유다(타데오)사도

▶오늘 미사 후 친교모임

다미아노 홀/ 성당 밖 좌측 20m

오랜만에 성당에 나오신분, 새로 전입오신분, 처음 뵙는 분
들께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형제애를 계속 실천하십시오.
손님 접대를 하다가 어떤 이들은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접대하기도 하였습니다” 히브13.2

▶10월 로사리오 성월, 주일 미사전 묵주기도

10월 한달동안 08시 50분 부터 모든 교우가 함께 묵주기
도를 바치겠습니다. 꾸리아 주재.

10/06	희망의 모후 Pr.(정다경)
10/13	우리즐거움의 원천 Pr.(진서운)
10/20	구세주의 모후 Pr.(유정옥)
10/27	우리즐거움의 원천 Pr.(이기원)

▶연령회 야외 행사: 애플픽킹

날짜: 10/12(토) 출발: 09시, 31번가 브로드웨이 코너
장소: Minard's Family Farm. Clintondale, NY
*아침식사로 샌드위치 준비됩니다.

▶전신자 묵주기도 500단 바치는 날

일시: 10/20(일) 미사직후~ 5pm, 아랫성당

▶2025년 부활 세례 및 견진 교리반 모집

“교우 한분이 예비신자 한사람을 인도한다는 지향으로
주변에 권유하시길 주시고, **미리 신청해 주세요.**”
교리 첫만남: 2024년 10/13(주일), 교육관 3A
세례 및 견진일: 2025년 4월 부활시기
일시: 매주일 오전 11시 신청: Sr.김효주 347.834.5784

▶어르신, 노약자를 위한 예비신자 교리 신청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나 환자들을 대상으로, 교리를
해드려, 세례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신체 기능 상태
에 따라 ‘직접 방문교리’ 또는 ‘단기 출석교육’ 가능합니다.
신청: 사무실 347.83.5784

▶14차 성장세미나, 성령안에서 영적성장 원하시는분

일시: 10/27(일)~30(수), 3박4일 장소: 마리안 쉬라인
신청: 성령기도회장 이미숙안나 917-579-5072

▶미국의 변화를 위한 로사리오 기도에 오세요~

일시: 10/12(토) 낮12시(비 관계없음)
장소: 록펠러 센터 앞, 5th 준비물: 묵주

▶청년 레지오 단원 모집

대상: 20대, 30대, 40대 남녀가 기도 및 활동 나눔, 봉사, 본당 협조
등의 크고 작은 선교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
*희망의 모후Pr. 매주목 6pm 단장: 정다경마리아347-514-5783
*우리즐거움의원천Pr.매주일11am단장: 이기원 스테파노929-208-5147

▶하늘처럼 성가대 반주자 모집

성가대 단원들과 마음 합하여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실 피
아노 전공하신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반주가 가능한 본인 또는 주변
에 추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의: 지휘자 646-696-4680

▶미사지향 예물 접수 안내

미사지향예물을 신청하시는 교우분들은 다음 규정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상: 미사지향 예물에는 외상이 없
습니다. 외상으로 신청하는 경우 행정 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청장소: 주일미사후 친교실 또는 사무실. 원하는 미사 신청일 한 주전
주일까지 신청가능

*교우분들은 미사전 독서와 복음 읽기에 참여합니다. 미사전 독서와
복음을 미리 읽고 미사에 참여하면 말씀의 식탁에 풍성하게 차려진
말씀의 음식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말씀은 우리의 삶
을 풍요롭게 하는 살과 피가 됩니다.

▶성경을 읽기전 드리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
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경을 읽은후 드리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마르코 10,2-16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신자들에게 혼인성사를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 혼인 생활을 하는 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뒤따르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부 관계의 근본이 되는 하느님의 관계를 생생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관계는 언제나 주님과 관계에 그 바탕을 둥니다. 가족이 기도하면 그 관계는 계속 유지됩니다. 신랑이 신부를 위해 기도하고 신부가 신랑을 위해 기도하면 그 관계는 더욱 견고해집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2014.4.2. Udienza)

교황님의 말씀대로 혼인과 가정의 핵심은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부부와 가정은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따르더라도 그것을 견디어 내며 하느님의 뜻을 찾고자 합니다. 어려움과 시련을 기도 없이 이겨내려고 하는 것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신앙인은 특히 시련과 고통 중에 하느님께 기도하면서 하느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비록 하느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다 하더라도 기도 안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교황님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인생활에는 일자리나 금전적인 부족함에서 오는 어려움, 여러문제를 안고 있는 자녀들로 인한 어려움 등 많은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신경질을 부리거나 말다툼하는 때도 많습니다. 부부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혼인생활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티격태격하게 됩니다. 때로는 접시가 날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생살이가 다 그런 것입니다.” (2014.4.2. Udienza)

교황님의 말씀대로 부부 싸움은 우리 부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부부에게 보편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교황님은 인생살이가 다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살아가면서 아무 부딪침 없이 평화로이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부부나 가정 그런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다보면 부딪칠 수밖에 없고 깨질 수밖에 없고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족한 존재이기에 그렇습니다. 서로의 모난 부분이 서로를 찌를수밖에 없기에 함께 살아가려면 서로가 서로를 참아줘야만 합니다.

교황님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잘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말다툼하는 이유가 무엇이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언제나 부부들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말다툼을 했다 해도 화해하지 않고 하루를 마무리하지는 마십시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화해하는 데 ‘유엔’의 중재까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화해는 작은 행동 하나, 애정을 표현하는 작은 몸짓 하나, “미안해, 잘 자!”라는 간단한 인사로도 충분합니다. “미안해, 내일 봐!” 하고 인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2014.4.2. Udienza)

교황님의 말씀대로 부부 싸움 이후에 그냥 넘어가지 않고 화해하려는 노력과 시도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움과 상처가 깊어지고 쌓이기 때문입니다. 혼인성사는 다른 성사와 마찬가지로 신앙의 성사입니다. 혼인성사는 오직 신앙 안에서 효과가 있으며 신앙 안에서만 살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부의 신앙이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세례는 받았지만 복음화되지는 못했습니다. 역설적으로 말해서 그분들은 세례받은 예비신자들 또는 세례받은 이방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문명은 혼인제도나 그에 대한 법규들을 신적 질서로 여겼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준수하는가에 한 민족의 존립과 번영 그리고 미래가 달려 있었습니다.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 대한 지나친 기대로 세상을 행복하게만 살아가기를 바란다면 그 상대방은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되는 셈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혼인생활에 실망만 안겨 줄뿐입니다. 이러한 과도한 기대로 많은 혼인생활이 파탄을 겪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자녀들과 함께 이루는 사랑의 공동체는 하느님의 선물로 이해되어야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장재명 파트리치오 신부